

전북 첫 애견놀이터 문 열다

남원 요천생태습지공원 2000㎡ 규모 조성... 반려견 뛰놀 수 있는 공간 마련

남원시가 전북도내 최초로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애견놀이터를 개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애견놀이터 규모는 2,000㎡로 중·대형견과 소형견, 격리실이 분리 마련되어 있고, 반려견 운동시설, 음수대, 배변봉투함과 애견인의 쉼터 파고다, 야외용 테이블, 화장실, 주차장이 있어 안전한 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남원시가 전북도내 최초로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애견놀이터를 개장했다고 25일 밝혔다.

등록을 한 반려견과 애견인은 누구나 무료입장 가능하며, 13세미만 어린이 견주는 성인과 함께 입장해야 하고 질병감염, 맹견 등은 입장할 수 없다.

그동안 남원시에는 반려견 500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으나 반려견이 뛰놀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애로를 겪어 왔으나, 금번 애견놀이터 개장으로 반려견과 함께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애견인들이 무척 반기고 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은 과거 쓰레기매

립장을 생태공원으로 개선했던 사제로 부지는 14만5,208㎡ 규모로 단지와 습지부로 나뉘어 있고 단지부에는 야구장, 다목적 운동장, 애견놀이터, 모정 등이 있고 습지부에는 연꽃 등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수질정화습지, 생

태담방로, 관찰 전망데크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기피장소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 생태계 복원 장소이자 시민들 힐링·휴식공간, 학생들의 친환경 생태학습 체험장 등으로 거듭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썸통 더위 탈출 '순창발효소스토클'에서

평균 온도 15도로 올해 방문객 2만명 돌파... 관광 핫플레이스 급부상

순창 발효소스토클이 썸통더위 탈출과 다양한 재미로 순창군의 관광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순창 발효소스토클

군은 올해 순창 발효소스토클을 찾은 관광객이 2만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1만5,000명 보다 25%늘어난 숫자다.

특히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방문객 숫자가 늘고 있다. 이달부터는 주말이면 하루평균 3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발효소스토클을 방문해 더위도 잡고 발효소스토클에서 찾은 다양한 재미를 느끼고 있다.

인기의 비결은 우선 발효소스토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토클만이 가질 수 있는 시원함이다. 발효소스토클은 길이 134m, 최대폭 46m, 연면적 4,130㎡ 규모로 방문객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연평균 15~18도를 유지해 여름에도 장시간 있을 시 한기를 느낄 정도다.

두 번째 특징은 순창만의 색이 묻어나는 독특함이다. 발효소스 토클은 소형 저장고 10실을 갖추고 있고 이중 7실은 실제 전통장류 제조업체가 임대해 장류를 숙성 중이다. 또 50여개국 600여 소스를 스토리와 함께 풀어낸

소스기획전시관, 핑크간장, 간장소금이 있고 5대 마더소스를 색으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는 '소스 색을 입히다' 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 고유 장류문화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문화와 소스를 만나볼 수 있다.

세번째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재미다. 토클에는 최근 VR 가상현실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체험객들은 먼 미래에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난 선발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구하기 위해 순창고추장에서 추출된 백신을 전달하는 과정을 가상현실공간에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순창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결정하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옥정호 상수원 우리가 지킨다"

임실군, 지킴이 30명 채용 수질보전 활동 앞장

임실군이 옥정호 상수원 수질보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옥정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옥정호 내 불법행위 및 오염행위 감시 활동과 수변지역 쓰레기 수거 작업을 위해 지난 3월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30명을 채용, 수질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강수량과 행락객이 많아지는 3월에서 9월까지 옥정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된 감시대상은 상수원 내 방치 쓰레기 수거 정화 활동 및 쓰레기 투기 행위, 차량 세차행위, 낚시 행위, 오물 투기 행위 등이다.

군은 옥정호 수변 구역 6개소에 환경 감시 초소를 설치,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각 조별로 배정하여 담당 구역 내 정화 활동 및

불법 행위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매년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통하여 옥정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법 낚시 행위 및 쓰레기 투기 행위가 현격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3월부터 현재까지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실시하여 옥정호 수변의 방치 쓰레기 70톤을 수거·처리했다.

또한 옥정호 내 낚시 금지행위 29건 및 쓰레기 불법 투기 54건을 적발·계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금순 과장은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활동으로 옥정호 수질 향상 및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계속된 지킴이 교육 및 수질오염사고 방제 훈련을 실시하여 옥정호 수질 1급수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안내

남원시가 최근 로드킬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동물사체로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커지고 도로 미관도 훼손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로드킬로 인한 동물사체 처리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지방도 및 국도, 고속도로 등에서의 잦은 로드킬로 발생한 동물사체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바 로드킬로 발생한 동물사체는 어느 도로인가에 따라 처리하는 곳이 다르다.

국도에서 발생한 사체는 국토관리사무소(063-620-2932)에서 처리하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체는 한국도로공사(063-620-4114)에서 처리하며, 지방도 및 마을도로 등 그 밖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체는 남원시청(시내청은 환경과, 읍면은 각 읍면사무소)에 필요시 건설과 협조)에서 처리한다.

류장기 남원시 환경과장은 "여름철에 발생한 동물사체는 쉽게 부패되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더위 작물재배 지원사업 적극

남원시는 고품질쌀 적정 생산과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남원시의 이 같은 노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삼복더위 속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논에 재배한 타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이는 논에 비해 급수시설이 상대적으로 좋은 논작물 양육 상태가 좋은 것이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2017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쌀 변동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를 대상으로, 벼 대신 무, 배추, 고추, 대파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품목별로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올해 목표면적 614ha에 20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총 304.6ha 재배면적에서 조사료 143.4ha, 일반작물 136.8ha, 두류 24.4ha와 과수,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고 으며, 품목별 적기 식재 및 파종작업과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관리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작목별 ha당 지원 단가는 가축조사료 작물은 400만원, 일반·꽃거름작물은 340만원, 콩·팥 등 두류는 28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2016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17도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한 필지에 대해서는 ha당 품목군 별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게 되고, 보조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0월말까지 현장 이행 점검을 거쳐 필지별 적정 이행 농지에 대해 11월 중에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과수사업, 농업 고부가가치화·소득증대 견인

임실N과수사업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득증대를 주도해 나갈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선진기술을 배우려는 농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임실N과수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4년간 총 43억원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임실군 과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수농가들은 앞다투어 선진기술을 익히는 데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지난 24일 과수농가들은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행정과 사업단, 과수재배농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벤치마킹은 경기도 이천시 과수재배연구소와 복숭아 재배농장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견학은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임실N과수 융복합화' 일환으로 복숭아, 사과, 배 재배농가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농가들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이재만 연구사의 '이천시 복숭아 재배농가 및 유통현황' 브리핑을 청취하는 한편 선행경제연구원 조영근 원장의 '새로운 시대에 농업인 리더의 열정'

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듣기도 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들은 과수재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수 재배연구소 및 우수농장 견학을 통해 마케팅 기술 습득 등 농업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과수사업단과 농업인이 함께 과수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모색해 나가는 데 자리를 갖게 됐다.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되며, 복숭아와 사과, 배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사업장을 10월까지 건립을 완료 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학교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선편의 가공과일을 생산하고 전북도내에 유일한 가공설비를 완비하게 될 예정이다.

김명진 과장은 "과수사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재배농가들의 마인드 함양과 기술습득이 중요한 만큼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활성화 나가겠다"며 "복숭아, 사과, 배 등 지역의 특화된 과수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유통·체험으로 확장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